

(Matthew 2: 1-23; 27: 45-50)

I wonder whether you have ever heard or read of the Christian faith of Queen Victoria? One beautiful incident illustrates it. The Queen had attended a service at St. Paul's Cathedral in London and had listened to a sermon that interested her greatly. After it was finished, she asked her Chaplain, "Can one be absolutely sure of eternal safety in this life?" His answer was that he knew of no way that one could be absolutely sure.

저는 여러분이 빅토리아 여왕의 기독교적 믿음에 대해 듣거나 읽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아름다운 일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여왕은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의 성당의 예배에 참석하여 그녀의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어떤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그녀는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그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실케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This was published in the Court News and was noticed by a humble minister of the Gospel, John Townsend. After reading of Queen Victoria's question and the answer she received, John Townsend thought and prayed much about the matter, and then sent the following note to the Queen: "To her gracious Majesty, our beloved Queen Victoria, from one of her most humble subjects:

With trembling hands, but heartfilled love, and because I know that we can be absolutely sure now of eternal life in the Home that Jesus went to prepare, may I ask your Most Gracious Majesty to read the following passages of Scripture: John 3:16; Romans 10: 9-10? These passages prove that there is full assurance of salvation by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for those who believe and accept His finished work. I sign myself, your servant for Jesus' sake." John Townsend.

이것이 '코트 뉴스'에 쓰여졌고 the Gospel의 평범한 목사인 존 타운센드의 눈에 띄었습니다. 존 타운센드는 빅토리아 여왕의 질문과 그녀가 받은 대답을 읽은 후에, 여왕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보냈습니다: "은혜로우신 폐하이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계신 빅토리아 여왕님께, 가장 하찮은 신하 중 하나로 부터 떨리는 손과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려 간 그 집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완전히 보장되었음을 알기에, 제가 감히 폐하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16 과 로마서 10:9-10 절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완수된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당신의 종으로 제 이름을 서명합니다. 존 타운센드."

John Townsend was not alone in praying about his letter to the Queen. Much prayer from many hearts went up to God. In about 2 weeks he received a modest-looking envelope containing the following letter: To John Townsend: "Your letter of recent date received and in reply would state that I have carefully and prayerfully read the portions of Scripture referred to. I believe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for me, and trust by God's grace to meet you in that Home of which He said,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signed) Victoria Guelph.

존 타운센드가 여왕에게 쓴 편지에 관하여 기도하는데는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약 2 주 후에 그는 다음의 편지가 들어있는 평범해 보이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존 타운센드에게 "최근에 받았던 당신의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말하자면, 언급한 성경 말씀을 나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완수된 사역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자리를 예비하러 가신' 그 본향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습니다" 빅토리아 걸프 서명.

As we read on in Matthew 2 from the journey of the Magi, the Wise Men, to visit and worship the child Jesus, we find a horrific, shocking twist- the cold-blooded murder of what would have been dozens of baby boys – toddlers. There must have been a mass grave near Bethlehem, one filled with the small bodies of children. We see such graves from time to time on television. It's a tragic fact that a massacre like this is not an infrequent event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the question is: why? Why did Herod dislike Jesus so much that he wanted to kill him? Why was Herod prepared to kill any number of boys just to be sure that he had taken out one particular toddler?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one we might not like, because it involves us. The answer is that what we are seeing in this episode of the Christmas story is a turf war.

(Matthew 2: 1-23; 27: 45-50)

우리가 마태복음 2 장에서 동방 박사들의 여행, 아기 예수의 방문과 경배를 읽을 때, 12 명의 남자 아기-유아들의 끔찍하고도 충격적이고 냉혈한 학살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는 작은 어린 아이들의 몸으로 뒤덮힌 거대한 묘지가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그런 묘지를 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학살의 비극적 사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질문은 왜? 왜 헤롯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헤롯은 왜 특정한 한명의 유아를 제거하는 것을 확실케 하고자, 수많은 남자 아이들을 죽도록 준비시켰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 보고 있다시피, 세력 다툼인 것입니다.

You see, Herod was king of Israel. It was his country. He ruled it. Yes, he ruled it under the Romans, but most of the time he could ignore that fact. Israel was his. But now the Christ had been born. God's King of the Jews had arrived. And ultimately, Israel belonged to him (indeed the whole world did). Jesus had the greatest claim to be the ruler of Israel. Not the Romans. Not Herod.

여러분도 아다시피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사실이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왕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그에게 속하게 되어 있지요 (실로 전세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위대한 주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로마인들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었습니다.

So Herod had a decision to make. He could, like Queen Victoria did 1800 years later, accept that Jesus was the king over him. He could carry on being king, but under Jesus' authority, taking the decisions Jesus wanted him to, allowing his life to be shaped by Jesus. He could give his turf, his Israel, to Jesus, worshipping him as Christ. Or Herod could resist Jesus. He could fight Jesus. He could push Jesus out of Israel, so that he could carry on being the only ruler.

그리하여 헤롯이 내려야 할 결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이 1800 년 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를 다스릴 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행사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이 그가하기를 원하는 결정들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의해 다듬어진 그의 인생을 허락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세력, 그의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그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내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헤롯은 예수님께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지배자로서 행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스라엘 밖으로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He chose the second option. He tried to get rid of Jesus – that's why Bethlehem's toddlers were massacred. The action of mass murder was motivated by Herod's attitude of refusing to let Jesus be his ruler. That attitude is what the Bible calls "sin", isn't it? It is the attitude which resists Jesus' rule, which would rather Jesus didn't exist, which refuses to accept that Jesus, God's Christ, is the rightful ruler. It's the attitude which says: "This is my turf, Jesus, not yours. I will not let you have it. I will fight you".

그는 두번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그리하여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학살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살인의 행위는 예수님이 그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 헤롯의 태도에 의해 동기 부여된 것입니다. 그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고, 예수님이 차라리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마땅한 지배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영토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당신과 싸울 것이요"

Herod had a lot of turf – the whole of Israel. Most of us don't have much at all. But we do have our own life. In my life, in what I do and say and how I treat people, I'm the ruler. It's mine. However, if Jesus is the Christ – if he really is God's Son who created me and created the world I live in – then actually my life belongs to him. He has the greatest claim to say how I should live and what I should

(Matthew 2: 1-23; 27: 45-50)

do and how I should treat others in his world. He has a greater claim than anyone else, a greater claim even than mine.

헤롯은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모든 이스라엘. 우리 대부분은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만일 그가 정말로 나를 창조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말할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것보다 더 큰 권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the turf of my own life, I have a choice. I can accept Jesus' rule, worshipping him as my king – like the Magi. Or I can resist and refuse his rule - like Herod. Naturally, I choose the second option. I rule my own life. I sin. Because I was brought up to have manners, I do it quite politely. I'm not rude about Jesus, I'm often quite nice to other people, I work hard. Sometimes, when what Jesus says happens to agree with what I already think, I do what he'd like. But at the end of the day, I want to be in charge of my life, not Jesus. So I act as if he isn't the King. I act as if he's dead.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동방 박사들처럼. 아니면 우리는 그의 지배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헤롯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번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삶을 다스리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너를 유지하도록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꽤 예의바르게 행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례하게 굴지 않고,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도 꽤 상냥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가끔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된 것들을 예수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의 끝에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아닌, 제가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가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그가 죽은 것인양 행동합니다.

And the hard truth is that this is what we all do, naturally. When it comes to the turf of our own lives, we are all like Herod. That doesn't lead us to ruin people's lives through committing mass murder. But our refusal to let Jesus be our ruler does lead us to ruin others' lives in smaller, less noticeable ways. The person whose heart we selfishly broke, who can't quite put it behind them. The person we laughed at, shattering their confidence. The person we trod on to get a promotion at work, who's now twisted by bitterness. The person we simply never noticed and unconsciously ignored, who feels lonely and worthless. The little things we do each day which make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a bit less satisfying than God wants them to be.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헤롯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대한 살인을 통한 인간의 삶을 파멸시키는데로 이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의 거부는 우리를 작게, 덜 눈에 띄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어 그것을 쉽게 잊어 버리지 못하게 만든 사람,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비웃었던 사람, 일터에서 우리가 그들의 승진을 위한 길을 짓밟아, 이제는 쓰라린 마음으로 비뚤어진 사람, 우리가 그들을 그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무시하여, 외롭고 스스로를 아무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된 사람. 날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리하고자 하신 것보다 약간 덜 만족스럽게 만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I wish this didn't describe me. I wish I could look at my life and truthfully say I've never acted in those ways. But when I'm honest, I know that I can't. I'm guessing you can't either. And all those outward actions (and many others) are signs of an inward attitude – an attitude that looks at our life and looks at Jesus Christ and says: "This is my turf, Jesus, not yours. I will not let you have it". It is a hard truth to accept!! But it explains what we see in the world around us, and it explains what we

(Matthew 2: 1-23; 27: 45-50)

sometimes notice in our own hearts. We are sinful, just like Herod. And just like Herod, we are fighting a turf war we can't win.

저는 이것이 나를 설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을 바라봤을때,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고 진심을 다해 말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해 질때, 저는 그럴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여러분도 그럴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내면의 태도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나의 영역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취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가끔 알아채는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You see, Herod must have thought that he had all the power. He had priests to advise him, wise men to inform him, soldiers to kill for him. But he couldn't do what he wanted – he couldn't kill Jesus off. Because compared to God, he had no power at all. God was in in control – sending angels, speaking through dreams, moving his son to safety in Egypt. King Herod tried hard to get rid of God's King – but he couldn't. And by the time Joseph brought his family back from Egypt to Nazareth, only one of those two kings was still alive – and it wasn't Herod! The turf that Herod had killed to keep was taken away from him. I wonder what God said to Herod when he died? I wonder if Herod tried to find a way to excuse how he had treated God's Son, and how he had treated others as he fought God's Son? I doubt there was anything he could say!

여러분이 보다시피, 헤롯은 그가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조언을 해줄 사제들, 정보를 주는 현인들, 그리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원했던 것을 할수는 없었습니다-그는 예수님을 죽여 없앨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비교 되었을때, 그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천사를 보내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안전하게 이집트로 옮기셨습니다. 헤롯왕은 하나님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사렛으로 그의 가족을 데리고 돌아왔을 당시에, 이 두 왕중 한명만이 살아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왕은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지키고자 했던 영토는 그에게서 빼앗겨 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헤롯이 죽을때 그에게 무엇을 말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헤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지에 대해 변명할 길을 찾으려 애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가 어떤 할 말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And, like Herod, we can resist Jesus' right to rule throughout our whole lives if we choose to. But, however powerful we are, we can't resist him forever. Just as it did for Herod, the time will come when each of us dies. I wonder what you're planning to say to God beyond your death? Is there any possible excuse you and I will be able to offer for how we've treated God's Son, and how we've treated others as we've resisted and fought him? It won't help to argue that our actions have been less serious than others. Or that we did some good things among the bad. Or that we had thought about Jesus from time to time – or even that we believed he was quite special.

그런데, 우리도 헤롯처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예수님의 다스림에 저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건간에, 우리는 영원히 그를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헤롯처럼 우리 각자도 죽게 될 때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음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 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 저항하고 싸울때, 그를 다루는 방식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 드릴 어떤 가능한 변명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덜 심각하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그 나쁜 것들 중 몇가지 선행도 행했다는것. 혹은 이따금씩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것-혹은 그가 꽤 특별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Our sinfulness means that none of us will deserve a place in the kingdom of Christ that we have rejected. There will be no eternity enjoying all his goodness and gifts - of which the best of this life is just a tiny glimpse. Instead, there will be an eternity outside his kingdom, enduring an existence

(Matthew 2: 1-23; 27: 45-50)

with nothing good at all – of which the worst of this life is just a glimmer. This is a hard truth – it certainly makes death something to be terrified of. It’s an unpopular truth in our society – but that doesn’t stop it being true. I need rescuing from the consequences of my rejection of Jesus, the Christ. We all do. So it’s great to remember what the angel said to the shepherds in the fields outside Bethlehem: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u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Luke 2: 11). Jesus was born not only to rule us, but to rescue us.

우리의 죄악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거부했던 예수님 나라의 자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선함과 은혜-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도 이것의 단지 작은 엿보기에 불과할-를 누릴 영원함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라곤 없는 존재를 견디면서, 그 나라 바깥에서는 영원함이 있을 것입니다-이 세상의 가장 안좋은 것도 거기에 비하면 그저 희미한 빛일뿐 일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진실입니다-이는 확실히 죽음을 공포스러운 원가로 여기게 만들지요.

And that is what we find him doing at the end of Matthew’s Gospel in chapter 27. The sky going black as the Jewish leaders killed God’s Christ should be of no surprise. The darkness signaled that God’s anger had come. Of course God the Father was angry! His own Son, whom he loved, was being unfairly executed. Wouldn’t you be angry if it was your son? The surprise is not that God the Father was angry – the surprise is who God was angry with. His anger and his punishment didn’t fall on the men who had fought a turf war against his Christ. They didn’t die. No! God the Father’s anger and punishment fell on the man who was his Christ. His anger fell on his Son – on the only man of his day, of any day, who had never done anything wrong. The shock is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God the Son chose to bear the punishment that people deserve for their sin, for their refusal to let Christ rule. Jesus experienced the hell of being shut out of his Father’s kindness and kingdom. He traded places. He was punished instead of sinful people – instead of you and me. God’s Son took God’s anger so that we don’t have to.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7 절 끝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하늘이 검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는 신호였지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던 그의 아들이 불공정하게 집행 당했으니까요. 만약 그가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셨는지에 있습니다. 그의 화와 벌은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세력 다툼을 벌였던 인간들 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의 진노는 그의 아들-그의 생애, 한 날도,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던 유일한 인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이란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들의 죄의 댓가로 받아 마땅할 벌을 아들이 지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친절함과 그의 나라 밖으로 차단되어,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자리와 교환된 것입니다. 그는 죄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화를 받으신 것입니다.

Jesus’ agony on the cross shows us how horrific life without God is. It shows us what you and I face beyond death for trying to push him out of the turf of our lives – namely a future, an eternity outside Christ’s kingdom. But his cross also shows us that this doesn’t need to be our future. When we die, instead of standing before God with nothing to say and no excuses to make, we can stand there and say: “The Christ I resisted took hell in my place, instead of me. The Christ I resisted saved me from hell. The Christ I resisted has given me a place in his perfect kingdom”. When the angel told those shepherds that “a Saviou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he was pointing to the cross. The baby lying in a manger at the first Christmas had come to hang on the cross on the first Good Friday. Jesus came not only to rule people, but to rescue them. Not only to tell people about his eternal perfect kingdom, but to make a way for sinful people like us to get into that kingdom. He came to be the Saviour. He chose to die so that our death does not need to be a terrifying dead-end, the end of all hope and joy and peace. It can be the doorway to perfect life in Christ’s kingdom.

(Matthew 2: 1-23; 27: 45-50)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의 영역 밖으로 그분을 밀어내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직면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름하여 미래, 예수님 나라 밖에서의 영원함.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가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때, 아무 말도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것 대신에, 우리는 거기에 서서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내가 저항했던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자리에서 지옥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저항했던 예수님이 지옥에서 날 구하셨습니다. 내가 저항했던 예수님이 그의 완벽한 나라에 한 자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천사가 십자가를 가르키며,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너희를 위해 태어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말합니다. 첫번째 크리스마스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첫번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려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지 영원한 그의 완벽한 나라를 말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많은 인간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죽음이 모든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끝이자, 공포스러운 죽음의 과정일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나라의 완벽한 삶으로 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It's ironic, when you think about it. God the Father was in control at Jesus' birth, so that Herod's attempts to kill him failed. And God the Father was still in control at Jesus' death, which is the only reason the religious leaders' attempts to kill him succeeded. The script had been written not in a palace or a temple but in heaven. Almighty God was in control of every detail.

이것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실패하도록 예수님의 출생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의 유일한 이유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성공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궁전이나 성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밀한 면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God's plan had always been for his Son to be born as the Christ, the Ruler; to die to be his people's Saviour, the Rescuer; and to rise to eternal life beyond death so that he can welcome people who worship him into perfect life in his kingdom.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 통치자로 태어나, 그의 백성의 구세주이자 구조자가 되기 위해 죽어,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의 나라의 완벽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다시 일으켜 지는 것이었습니다.

Praise be to God for the indescribable gift of his Son, Jesus Christ, to be our Saviour and Lord.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할수 없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